

순천만 '스카이 큐브' 스톱 '공포의 1시간'

(소형무인궤도차)

승객 수십명 태운 9대, 10m 높이서 갑자기 멈춰

구조과정 일부 부상... 운행 재개됐지만 불안감 호소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을 잇는 국내 최초의 소형무인궤도차(Sky cube) 9대가 최근 승객 수십 명을 태운 채 지상 10m 높이의 레일에서 동시에 멈춰서 사고가 일어났다.

승객들은 정지된 소형무인궤도차 안에서 최대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구조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해당 운영업체는 승객들을 모두 구조하고 안전점검을 마친 뒤 운행을 재개했다. 일각에선 최근 연이어 터진 대형철도의 원인이 안전불감증에서 비

롯된 점을 감안하면 운행 재개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해당 시설의 경우 자칫 안전점검이 소홀하게 이뤄질 경우 '공포의 밧'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소형무인궤도차 운영업체인 S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승객 수십 명을 태운 소형무인궤도차 9대(대당 승차인원 8명)가 레일 위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레일 높이는 지상에서 2~10m, 구간 길이는 왕복 9.6km이며 최고운행속도는 시속 40km(왕복 소요시간 20분). 사고

가 나자 S업체 직원들은 수동(4대)·자동 조정장치(5대)를 이용, 소형무인궤도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수십 명은 무사히 구조될 때까지 최대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승객 4명은 구조 과정에서 찰과상 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S업체 측은 출발지점인 순천정원역 직접 인근에서 무선통신기기가 끊어지면서 소형무인궤도차가 멈춰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조정으로 이동하는 소형무인궤도차는 관제실과 무선통신이 끊어질 경우 안전상 자동정지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S업체는 이날 승객들을 구조한 뒤 시험운행(3회) 등 2시간 동안 안전점검을 한 뒤 오후 1시 운행을 재개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업체 측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한 뒤 운행을 재개한 것이 맞느냐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승객 조모(여·46)씨는 "1시간 동안 고공에서 떨고 있는데도, 안내방송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로 (업체 측에) 연락을 취한 뒤에야 안내방송을 했다"며 "운행이 정지된 것도 문제지만 대처능력은 더 큰 문제다. 불안해서 믿고 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업체 관계자는 "사고 직후부터 안전점검을 벌였으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며 "최근 안전이 최대 이슈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실수는 인정한다. 안전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국화원에 선 한복입은 어린이 27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2014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광주 흥흥어린이집 원생들이 국화꽃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내달 3일까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고교 55곳 '교사 추천서' 표절 의심

대교협 국감 제출 자료 분석

광주지역 일반고교 50곳 중 30곳에서 대학입시 필수 제출서류인 교사추천서가 표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25개 고교 표절 교사추천서가 발견됐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입학성 대상 대학별 유사도 검색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99개 고교에서 대학입시 과정 중 제출한 교사추천서가 '위협수준'의 유사도를 보였다.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판정기준은 유사도 20% 이하는 '유익수준', 20~50%는 '의심수준', 50% 이상은 '위협수준'이다. 위협수준의 경우 사실상 표절로 판단된다. 전국 1599개 고교에서 위협수준의 유사도를 보였고, 이 중 광주지역 고교는 30곳, 전남지역은 25곳이다.

이번 검사에서 교사의 추천서는 54개 대학의 18만349건을 검증해 17만2308건(95.54%)은 유의수준으로, 6442건(3.57%)은 의심수준으로, 1599건(0.89%)은 위협수준으로 분석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빛원전 3호기 방사능 유출량 더 많았다

원전 측 삼중수소·탄소동위원소 측정 누락 확인

한빛원전 3호기 증기발생기 세균 균열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될 당시 외부 환경으로 유출됐던 방사능이 애초 원전 측 집계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일 원자로 가동이 정지됐던 한빛 3호기에서 배출된 방사능 물질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했던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의 380억분의 1이 아니라 30만분의 1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 한빛원전 세균 파손으로 외부환경

에 누출된 방사능 총량도 18.8기가베크렐로 애초 원전 측이 집계했던 1.1기가베크렐보다 대폭 늘게 됐다.

한수원은 복수기에서 배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을 분석하면서 삼중수소와 탄소동위원소(C-14)의 양을 누락, 의무 위반을 인정했었다. 방사능 유출량 증가는 민간환경감시센터가 현장 점검과 한수원 보고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9 해질 17:43
달출 10:43 달짐 21:16

올 가을 '가장 큰 일교차'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주 | 맑음 | 6/21 | 보성 | 맑음 | 3/20 |
| 목포 | 맑음 | 8/21 | 순천 | 맑음 | 8/20 |
| 여수 | 맑음 | 12/19 | 영광 | 맑음 | 4/19 |
| 나주 | 맑음 | 2/21 | 진도 | 맑음 | 7/20 |
| 완도 | 맑음 | 8/21 | 전주 | 맑음 | 4/20 |
| 구례 | 맑음 | 3/19 | 군산 | 맑음 | 5/19 |
| 강진 | 맑음 | 5/21 | 남원 | 맑음 | 1/20 |
| 해남 | 맑음 | 4/21 | 축산도 | 맑음 | 12/18 |
| 장성 | 맑음 | 3/20 | | | |

◇바다 날씨

| 방향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 서해 | 남바다 | 북~북동 | 1.0~2.0 | 북동~동 | 0.5~1.0 |
| 남해 | 남바다 | 북~북동 | 1.5~2.5 | 북동~동 | 0.5~1.5 |
| 서부 | 남바다 | 북~북동 | 0.5~1.5 | 북동~동 | 0.5~1.0 |
| 동부 | 남바다 | 북~북동 | 1.0~2.5 | 북동~동 | 1.0~2.0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40 |
| 운동 | 80 |
| 빨래 | 90 |

◇주간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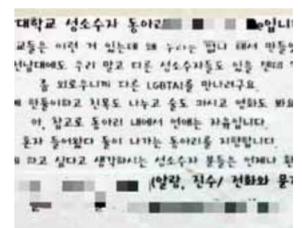
| 날짜 | 29(수) | 30(목) | 31(금) | 11/1(토) | 2(일) | 3(월) | 4(화) |
|----|-------|-------|-------|---------|-------|------|------|
| 날씨 | ☀ | ☁ | ☁ | ☁ | ☀ | ☁ | ☀ |
| 기온 | 7/22 | 10/21 | 14/20 | 15/20 | 13/19 | 9/17 | 6/17 |

대화가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 '시끌'

전남대 'Lights on Me' 회원 모집 전단 논란

학생 반응 "무시" "응원" 갈려

광주지역 대학가에 첫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이 시작돼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에 대한 대학생의 반응은 엇갈렸다. 성소수자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전단을 찢는가 하면 SNS 상에서는 단순 조롱을 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성적 취향을 떠나 이명



2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남자 화장실 벽면에 붙은 성소수자 동아리 홍보 전단물.

대학 첫 성소수자 동아리에 대한 재학생의 반응은 다양했다. 전단 밑에 쪽지를 붙여 응원의 문구를 남긴 경우도 있었지만 다수의 전단은 훼손, 제거된 상태다. 동아리 관계자는 "용기를 내어 많은 학우가 볼 수 있는 장소를 골라 전단을 붙였는데 며칠 후에 보니 대부분 찢겨있더라"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대, 이화여대 등 전국 15개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가 모인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Queer University)가 출범했으며 지역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부산대가 참여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들

MBN <천기누설> 제작팀이 1회부터 85회까지 소개한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 특별판!

천기누설 약초보감

천기누설 시리즈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 할 책!

천기누설 1~8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결·김달래·이광연 김수 | 전권 124,000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결·김달래·이광연 김수 | 정가 85,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2-332-4972